

# ‘광주그린카 부품재단’ 내달 설립

## 클린디젤차 핵심부품 개발...광주시, 5년간 국비 1871억원 투입

광주시가 클린디젤자동차 주요 핵심부품 개발과 조기 양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이하 광주그린카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오는 16일 발기인총회를 갖고 이후 지식경제부에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한 뒤 이르면 다음달에 재단법인을 발족시킬 예정이다.

광주시는 14일 “지역 주력기업인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을 전담할 기구가 필요해 광주시와 지역대학, 지역기업 등이 참여하는 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은 2011년부터 5년간 국비 1283억원 등 1871억원을 투입 디젤기술전문센터와 핵심부품소재센터 및 핵심장비 등 연구개발시설을 구축하고 동력발전부품·동력전달부품·전후처리·차체부품 등 개발하는 것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우선 내년까지 원장 산하에 전문가 및 공무원 9명으로 클린디젤자동차산업단과 사업지원실을, 2015년까지 14명으로 차세대자동차산업단과 기업정책지원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재단은 그린카부품산업 분야의 기획 및 전략수립 등 광주시 자동차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기술개발 및 이전·창업보육·마케팅 지원,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전략 수립 등을 맡게 된다.

강계두 광주시 경제부시장(이사장), 김용환 경제산업정책실장, 주영준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장 등이 당연직 이사로, 전남대·조선대·남부대 산학협력단장, 광주테크노파크 차세대자동차센터장 등은 물론 지공감(주), (주)호원 등 업체 대표이사

산입직 이사로 참여했다.

광주시는 재단에 2억원을 출연하고 2015년까지 운영비로 매년 5억원 예산을 총괄하고 기술개발 및 이전·창업보육·마케팅 지원,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전략 수립 등을 맡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후방 연관효과 큰 자동차산업이 지역경제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린카부품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기관인 재단을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다음달에 원장, 단장 및 직원 등 모두 6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부모세대 은퇴 준비 8.7년” LG研 “20년뒤 3.4년 불과”

지난해 기준 부모 세대의 은퇴 준비기간은 8.7년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은퇴 준비기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현 추세대로라면 오는 2030년에는 3.4년까지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 이지선 연구원은 14일 ‘캥거루 자녀, 부모의 은퇴 준비기간 단축시킨다’ 보고서에서 “자녀의 독립시기, 은퇴연령,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을 이용해 계산한 결과 자녀 독립 후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지난해 기준 8.7년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동일한 분석으로 계산한 일본(12.4년)이나 미국(15년)보다 짧은 기간이다.

이 연구원은 “선진국은 자녀의 교육비나 결혼 자금에 대한 부담 적어 자녀 취업 이전에도 미리 은퇴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부모세대가 은퇴 준비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본격적인 은퇴 준비기간은 1995년 10.3년에서 2000년 9.8년, 2005년 9.1년 등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연합뉴스



“몸에 좋은 장흥 특산물 사세요” 광주시세계백화점이 14일부터 19일까지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희망의 정남진 장흥, 장흥군 특산물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산물전에는 장흥에서 생산되는 표고관련제품과 수산물, 편백나무 공예품 등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된다. 14일 이명홍 장흥군수(오른쪽)와 백화점 관계자 등이 특산물전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 신세계 제공>

### 대우일렉, 멕시코 가전 성장률 1위

#### 냉장고·세탁기 등 전품목 20% 이상 판매 신장

광주에 공장을 둔 대우일렉이 멕시코 가전 시장에서 성장률 1위를 기록하며, 주요 가전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14일 멕시코 전국 가전제품 생산자 협회에 따르면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올해 5월까지 매출성장률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냉장고 41%, 세탁기 22% 등 전체 품목에서 20% 이상 판매신장을 기록했다. 이는 멕시코 가전 업체 중 제일 성장률 1위다.

올해 1분기 점유율에서도 전자레인지 2위(24%), 세탁기 3위(10%)를 기록하며, 현지 최대 브랜드 마베와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우리금융 매각 산은 배제 배경은?

## 특혜의혹 없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관철 타사 참가 유인...민영화 효과 극대화 기대

우리금융지주 매각에 산은금융지주의 입찰이 배제된 것은 ‘특혜의혹’을 없애려는 정부의 교육정책이다.

또 이를 대가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관철, 다른 금융지주사의 인수 참여를 독려해 우리금융 민영화를 꼭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라도 분석된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의 상황을 비교했을 때 미환급 금액이 늘어난 경우를 통해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해지한 소비자가 통신사들한테서 찾아가지 않은 과·납금, 보증금, 할부보증금 등이 아직 1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인을 제공하면서 민영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지주사로서 우리금융의 지분 50%만 확보하고 5년 안에 이런 예외 사유를 해소하면 자회사로 인정받을 수 있어 입찰 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금융위는 산은금융을 입찰에서 배제하는 대신 의원들을 설득해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금융지주사를 포함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오는 29일 입찰참가의향서(LOI)를 받는 등 매각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정 후보자(산은금융)를 염두에 두고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게 아니라는 금융당국은 거듭된 해명에도 이를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하는 강 회장에 특혜를 주는 조치로 여기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아당에서는 시행령을 고치지 못하도록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여당마저 산은금융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우리금융을 비롯한 금융권에서도 굵직한 시선을 보였다.

실제로 금융지주사들은 우리투자증권 등 우리금융의 비은행 자회사 인수에는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자산이 300조원을 넘는 우리금융을 통째로 인수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결과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구성한 ‘메가뱅크’(산은+우리금융)는 물 건너 간 셈이다. 하지만 산은금융을 빼면 덩치 큰 우리금융을 인수할 만한 금융지주사가 없어 민영화 또한 물거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강 회장은 지난 3월 취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금융을 인수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폈다.

실제로 금융지주사들은 우리투자증권 등 우리금융의 비은행 자회사 인수에는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자산이 300조원을 넘는 우리금융을 통째로 인수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14일 산은금융을 우리금융 입찰에서 배제하겠다고 못을 박으면서 강 회장의 이 같은 구상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무엇보다 산은금융과 우리금융을 꼭짓기하려는 게 아니

△민영화는 예정대로...매각차질 우려=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다른 금융지주사에 참가

/연합뉴스

### “이통사 안 돌려준 돈 123억원”

#### 전병헌의원 국회 보고...통신사업자연합 홈페이지 조회

KT·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서비스를 해지한 소비자들에 돌려주지 않은 돈이 123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중당 전병헌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해지한 소비자가 통신사들한테서 찾아가지 않은 과·납금, 보증금, 할부보증금 등이 아직 1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 중소중앙회 15일부터 접수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15일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배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일부 통신사의 미환급금이 증가한 것은 소비자들의 주위가 낮아진 탓도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사들이 미환급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www.ktoa-refund.kr)에 방문하면 미환급액 정보를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제조업종의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모두 4만명으로, 이번 3분기에 배정되는 근로자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등 15개국 출신 7000명이다.

전 의원은 “일부 통신사의 미환급금이 증가한 것은 소비자들의 주위가 낮아진 탓도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사들이 미환급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www.ktoa-refund.kr)에 방문하면 미환급액 정보를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 희망 업체는 중소기업회 광주전남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955-9966.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비새는 아파트옥상·슬라브주택·빌라·공장의 희소식

### 국내최초 특허 제10-0986204호 슬라브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 슬라브지붕누수

1.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료가 최소 30%정도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이상 간다.
5. 장독대, 빨래건조대로도 사용할수있다.
6. 고추는 땅에서 말리는것보다 3~4배 더 잘마른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 완벽방수 시공한다.
8. 강판바닥이 더러워지지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미리도 다시 뚫어서 물빠짐이 원활하다.

공장직영 / 완벽한시공 / 확실한S/S 보장, 전국 최다 시공팀 직접운영 시공을 원하시는 분

단 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방수시스템!

한능칼라강판지붕개량 061) 335-8842, 010-4024-4005

##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가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80-29